



## 디지털자산 수탁 보안 설계 - 사례 기반 패턴 학습

본 문서는 백엔드 개발자 대상의 수탁형 지갑 설계 교육을 위한 배경 자료이다. 수탁형 지갑의 목표는 “**잘못된 송금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통제 설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키를 숨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책(rule)과 절차가 지갑 시스템에 깊게 녹아 있어야 한다. 아래의 4개 패턴은 글로벌 수탁업체들의 설계에서 도출된 핵심 교훈으로, 각 패턴마다 실제 업체 사례→기술적 이유→설계 규칙을 정리했다. 마지막에는 발표자가 기억해야 할 **1페이지 보안통제 메모**를 제공한다.

### 1. 패턴 1 - “Allowlist + Hold: 실수와 침해를 구조적으로 느리게 만든다”

#### 사례 및 근거

- **Coinbase** – 암호자산을 인출할 때 “주소록(allowlist)” 기능을 제공한다. 주소록에 없는 주소로는 출금할 수 없으며, 새 주소를 추가하면 **48 시간 보류(hold)** 기간이 적용된다. 이 보류기간 동안 주소는 미활성 상태로 남아 있어, 해커가 계정을 침해해도 즉시 송금할 수 없다 <sup>1</sup>. 이러한 주소 화이트리스트 + 보류 정책은 **인증되지 않은 주소로**의 송금을 **지연**하여 인간의 **복사-붙여넣기 오류나 악성 소프트웨어가 주소를 바꿔치기하는 사고**를 **완화**하고, 계정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할 시간을 벌어 준다 <sup>1</sup>.
- 다른 거래소도 유사한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5년 Aura 보안 블로그는 Coinbase 주소록 기능을 소개하면서 “허용 리스트에 주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48시간 지연**이 적용된다”고 언급하며, Coinbase “Vault” 계좌는 여러 승인자를 요구하고 출금 시 **48시간 지연**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sup>2</sup>. Reddit 사용자들도 **허용리스트를 끄거나 변경하면 48시간 동안 거래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sup>3</sup>.

#### 왜 그렇게 했나? (기술적 이유)

- **실수와 침해를 느리게**: 주소를 미리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용자의 착오 및 악성 주소 대체 공격에 대비한다.
- **대응 시간 확보**: 계정이 탈취되더라도 48시간 내에 이상 징후(이메일 알림, SMS 등)를 확인하고 주소를 차단할 수 있다.
- **규정 준수 및 감사 용이성**: 주소 추가와 활성화 과정에서 승인·로그를 남기면 사후 감사와 규제 준수가 용이하다.

#### 설계 규칙 (Best Practice)

1. **화이트리스트는 지연장치까지 포함해야 한다**. 단순히 승인된 주소 목록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등록 → 승인 → 지연(hold) → 활성화’라는 상태 머신을 구현해라.
2. **사용자 경험과 보안을 균형 있게 설계**: 48시간 hold를 기본값으로 두되, 기업 고객의 경우 관리자 서명이나 다른 통제 하에 지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3. **시스템 내 통제 모듈 배치**: 이 기능은 정책 엔진에서 규칙으로 관리하고, 주소 등록 승인은 별도의 **Approval** 모듈에서 수행한다. 모든 상태 변화는 **Ledger/Audit**에 기록해 추적 가능하도록 한다.
4. **알림 및 UI UX**: 새 주소 등록·활성화·거절 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의심스러운 변경 요청은 관리자에게 경보를 보낸다.

## 2. 패턴 2 – “정책 엔진 무결성: 정책을 바꾸는 것이 사고다”

### 사례 및 근거

- **Fireblocks** –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인 Fireblocks는 모든 민감한 연산을 하드웨어 격리 환경(TEE)에서 실행한다. Fireblocks가 발표한 보안 백서에 따르면, 정책 엔진은 보안 격리 환경(예: Intel SGX) 안에서 실행되며 외부 공격자와 내부 악의적 직원이 정책 규칙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sup>4</sup>.
- Fireblocks는 정책 엔진을 버전 관리되는 규칙 세트로 취급하고, 변경 시 관리자 quorum 승인(메이커-체커)을 요구한다 <sup>5</sup>. 정책 변경 자체를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하여 감사 로그를 남기며, 정책이 적용될 때뿐만 아니라 “정책 변경 이벤트”가 중요한 보안 포인트임을 강조한다 <sup>5</sup>.
- Fireblocks의 다른 문건은 정책 엔진과 키 쉐어를 모두 Intel SGX 엔클레이브 안에서 운영해, 해커나 내부자가 역할/규칙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있다고 설명한다 <sup>6</sup>.

### 왜 그렇게 했나? (기술적 이유)

- **정책 변경은 곧 사고**: 주소당 제한, 금액 한도 등 policy rule 자체가 자산 보호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정책을 변경하면 즉시 다른 규칙이 적용되므로, 공격자는 정책을 바꿔 출금을 쉽게 만들려 한다.
- **코드와 데이터의 무결성 보호**: 정책 엔진을 TEE (신뢰 실행 환경) 안에 넣으면, 엔진 자체와 규칙 파일이 암호화된 메모리에서만 실행되고, 승인된 관리자 서명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 **감사 가능성**: 정책 변경 이벤트는 별도로 기록되고, 변경 전후 버전을 비교할 수 있어 감사인이 위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다.
- **쓸모 있는 관제 포인트**: 많은 침해는 정책을 무력화하여 송금 제한을 풀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책 변경을 감지하면 즉시 경보를 발생시켜 사고를 예방한다.

### 설계 규칙 (Best Practice)

1. **정책 = 코드 if문이 아니라 버전 관리되는 규칙 세트**: 정책 엔진은 환경설정 파일처럼 저장되고 버전 관리가 돼야 한다. 변경 전후 diff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룰백도 지원해야 한다.
2. **정책 변경은 별도 승인 프로세스**: 트랜잭션 승인과 분리하여, 정책 변경은 고위험 작업으로 처리한다. 관리자 quorum 승인, 다중 서명 또는 이중 확인을 요구한다 <sup>5</sup>.
3. **정책 엔진을 신뢰 경계로 승격**: SGX 등 TEE나 클라우드 HSM과 결합해 정책 엔진을 하드웨어 수준에서 보호한다 <sup>4</sup>.
4. **모니터링 및 감사**: 모든 정책 변경 이벤트를 Ledger/Audit에 기록하고, 변경 요청 → 승인 → 지연 → 적용의 상태 머신을 유지한다.

## 3. 패턴 3 – “Signer 경계 안으로 정책을 넣는다” (policy-in-signer)

### 사례 및 근거

- **Anchorage Digital** – Anchorage는 FTX 사태 이후 수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글에서 HSM 모델을 설명한다. Anchorage는 개인 키를 에어캡된 HSM 안에 보관하면서 동시에 HSM 내부에 정책 엔진을 구현하여 서명 지시를 검증한다고 밝힌다. 즉, 트랜잭션 생성과 서명이 같은 시스템에서 수행되며, 서명 시에 정책을 다시 확인한다 <sup>7</sup>.
- Anchorage의 기술 문서는 HSM 내부에 펌웨어 정책 엔진을 내장해, 각 거래 지시를 조직의 정책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증한다고 설명한다. HSM은 키와 정책을 모두 보호하며, Anchor Digital만의 설계는 정책을 검증할 때 “서명해야 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무엇을 서명하는지’도 확인한다\*\* <sup>8</sup> <sup>9</sup> .
- Anchorage는 이 구조를 통해 키·서명·정책을 동일한 경계 안에 두고, 오케스트레이션 API가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명을 수행하지 않는다. 각 HSM이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는 무단 변경이나 API 우회 공격을 차단한다 <sup>10</sup> .

## 왜 그렇게 했나? (기술적 이유)

- **API 우회 공격 대응:** API 계층이나 오케스트레이터가 해킹되면 거래가 허용될 수 있다. 서명 직전에 다시 정책을 검증하면, API 가 허락해도 HSM이 거부할 수 있다.
- **최종 경계에서의 통제:** 서명은 자산 이동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여기서 정책을 체크하면 실패한 검증을 즉시 차단할 수 있다.
- **추적 가능성:** HSM 안에서 정책 검증과 서명 과정의 로그를 남기면, 각 거래가 정책을 만족했는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 **단일 실패점 제거:** 정책 엔진과 서명 기능이 동일한 HSM 환경에 있으므로, 중간 시스템이 악용돼도 HSM이 마지막 방어선을 제공한다.

## 설계 규칙 (Best Practice)

1. **서명 직전에 정책을 재검증:** 정책 엔진은 오케스트레이션 계층뿐 아니라 **Signer (HSM 또는 MPC 서명 모듈)** 안에서도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 API가 거래를 허용해도 HSM이 다시 체크한 후 서명한다.
2. **정책-서명 통합 엔진 사용:** 가능하다면 HSM 또는 SGX 내에 정책 엔진을 내장해, 키와 정책을 동일 경계에서 관리한다 <sup>7</sup>.
3. **중간 계층 신뢰 최소화:** 오케스트레이터는 단순한 전송·알림 역할만 수행하며, 최종 서명 권한은 Signer 경계에 둔다.
4. **로그와 감사:** 서명 모듈은 정책 검증 결과와 서명 이벤트를 기록하여 사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 4. 패턴 4 – “SoD (분리 적합)를 키 구조로 강제한다”

### 사례 및 근거

- **BitGo** – BitGo는 모든 온체인 지갑에서 **3개의 키**(사용자 key, 백업 key, BitGo key)를 사용한다. 개발자 문서는 “BitGo Bank & Trust는 이 키들을 서로 다른 소유주에게 분산해 어떤 사람도 하나 이상의 키를 제어할 수 없게 한다”고 설명한다 <sup>11</sup>. 또 BitGo의 멀티시그 또는 MPC 지갑은 항상 2-of-3 키로 서명하며, 멀티시그 구조에서 사용자와 BitGo가 함께 서명해 출금이 완성된다고 명시한다 <sup>12</sup>.
- BitGo의 2025년 블로그는 “**2-of-3 구성에서 세 명의 키 소유자 중 두 명이 승인해야만 거래가 실행되며, 한 사람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sup>13</sup>. 이 구조는 내부자 사고나 키 분실에도 자금이 보호되며, 더 큰 조직은 3-of-5나 4-of-7 등으로 서명 요구수를 높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up>14</sup>.
- 해당 구조를 통해 BitGo는 **분리된 역할과 책임(SoD)**를 시스템 수준에서 강제한다. 예를 들어, **BitGo가 서명 참여자로 있지만, 사용자 키 없이는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BitGo 단독으로 자금을 이동할 수 없고, 반대로 사용자가 두 개의 키(사용자 + 백업)를 보유하는 셀프커스터디 음션에서는 BitGo가 코사인할 때만 출금이 가능하다** <sup>15</sup>.

## 왜 그렇게 했나? (기술적 이유)

- **내부자 위험 감소:** 한 사람(또는 하나의 시스템)이 두 개 이상의 키를 갖지 못하도록 해 내부자가 자금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한다.
- **키 분실 대비:** 2-of-3 구조는 하나의 키가 손실돼도 나머지 두 키로 복구할 수 있다.
- **정책 준수 강제:** 정책 엔진에서 “어떤 역할이 어떤 조건에서 서명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고, 그 규칙에 맞게 서명 요청을 분배함으로써 조직도의 직무 분리뿐 아니라 시스템 레벨의 강제력을 부여한다.
- **확장 가능성:** 조직 규모에 따라 3-of-5, 4-of-7 등으로 유연하게 확장해 더 높은 보안을 구현할 수 있다.

## 설계 규칙 (Best Practice)

1. **키 구조로 분리 적합 강제:** 승인자/요청자/서명자를 서로 다른 키나 서명 역할에 매핑한다. **Signer 키와 Policy 엔진, Approval 역할을 한 시스템이나 사람이 동시에 맡지 않도록 한다.**
2. **2-of-3 기본, 필요시 3-of-5 이상:** 작은 팀은 2-of-3으로 균형을 맞추고, 대형 조직이나 고액 자금은 3-of-5 이상으로 서명 요구수를 높인다 <sup>14</sup>.

3. 키 분배와 물리적 보관 분리: 키는 서로 다른 위치, 다른 관리자에게 분배하며, 백업 키는 오프사이트나 다른 기관이 보관한다 [11](#).
4. 정책 엔진과 Signer 분리: 서명 모듈은 정책 엔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책 엔진과 서명 장치가 동일한 키나 인프라를 공유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내부자 위험을 줄인다.

## Security Controls – 사례 기반 1페이지 메모

아래 메모는 발표자가 세션에서 강조할 핵심 통제 규칙을 요약한 것이다. 발표 때 사례→교훈→규칙 순으로 서술하자.

규칙	교훈/사례	설계 포인트
Allowlist = 지연장치 포함	Coinbase의 주소록은 새 주소를 등록하면 <b>48시간 hold</b> 를 적용하여 복사-붙여넣기 오류와 계정 침해에 대응한다 <a href="#">1</a> .	주소등록-승인-지연-활성화 상태 머신을 구현하고, 지연기간 동안 알림과 취소 옵션 제공.
정책 엔진 변경 은 고위험	Fireblocks는 정책 엔진을 SGX 엔클레이브에 넣고, <b>정책 변경은 관리자 quorum 승인 및 감사 로그를 필요로 한다</b> <a href="#">4</a> <a href="#">5</a> .	정책을 코드로 관리하고 버전화 하며, 변경 프로세스를 별도로 승인·지연·롤백 할 수 있도록 설계.
Signer 내부 정책 검증	Anchorage는 HSM 내에 정책 엔진을 내장해 <b>서명 직전에 거래 지시를 검증</b> 하며, 키와 정책을 하나의 보안 경계 안에서 보호한다 <a href="#">7</a> <a href="#">10</a> .	최종 서명 장치에서 정책을 재검증하고, API 오케스트레이션을 신뢰하지 않는 구조를 채택 한다.
SoD는 키 구조로 강제	BitGo는 모든 지갑에 <b>사용자 key · 백업 key · BitGo key</b> 를 사용해 <b>2-of-3 서명</b> 구조를 적용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 이상의 키를 보유하지 못한다 <a href="#">11</a> <a href="#">12</a> .	승인자·요청자·서명자를 키와 역할에 분리하고, 필요시 3-of-5 이상으로 확장한다.

## 추가 배경 지식 – 예상 질문 대비

### HSM, SGX 및 TEE는 무엇인가?

- **HSM(Hardware Security Module)**: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생성·저장·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다. 키는 HSM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외부 메모리로 노출되지 않는다. Anchorage의 HSM 모델은 **에어캡된 하드웨어**에 정책 엔진을 내장해 서명 지시를 검증한다 [7](#).
- **SGX(Intel Software Guard Extensions)**: CPU 내부에 **신뢰 실행 환경(TEE)**를 제공하는 기술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암호화된 메모리(enclave)에 넣어 운영체제나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공격자도 내부 상태를 볼 수 없게 한다. Fireblocks는 SGX 안에서 정책 엔진과 키 쉐어를 실행하여 외부 공격자·내부자 모두로부터 보호한다 [4](#).
- **TEE**: 신뢰 실행 환경의 일반적인 용어이며, SGX와 AWS Nitro Enclaves 등 여러 구현이 있다. TEE 내부에 정책 엔진을 배치하면 코드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원격 attestation(원격 검증)을 통해 실행 중인 코드가 신뢰할 수 있는 버전임을 검증할 수 있다 [16](#).

### 멀티시그 vs MPC 지갑의 차이

- **멀티시그**: 각 키가 독립적인 전체 키이며, 블록체인 네이티브 기능이나 스마트컨트랙트로 다중 서명을 요구하는 지갑이다. BitGo의 멀티시그 지갑은 **2-of-3 서명**이 필요하며 투명한 온체인 감사 기록을 제공한다 [14](#).
- **MPC(Multi-Party Computation)**: 하나의 개인 키를 여러 조각(key shares)으로 나누고, 각 파티가 자신의 조각만 보유하여 서명을 공동 계산하는 방식이다. BitGo는 MPC 지갑에서도 **2-of-3 key shares**를 사용하며, 각 파티는 자신의 key share를 보유하므로 아무도 전체 키를 보지 못한다 [17](#). MPC는 키가 온체인에 노출되지 않고 여러 체인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네트워크에서 전통적 멀티시그가 더 간단하다.

- 두 방식 모두 **분리 적합(SoD)**를 달성하며, 조직 상황과 자산 특성에 따라 선택한다.

## 키 복구와 관리

- **키 분실 시 복구:** 2-of-3 구조에서는 하나의 키를 잃어도 나머지 두 키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다. 백업 키는 안전한 장소(예: 금고, 별도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보관한다.
- **정기적 키 회전:** 시간이 지나면 키를 교체하는 ‘키 회전(key rotation)’을 실시해 장기간 노출로 인한 위험을 줄인다<sup>18</sup>. 회전은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 소액 테스트 트랜잭션으로 검증한 뒤 본격적으로 이전한다.
- **사망·퇴사 등 비상 상황:** 조직은 백업 서명자와 구체적인 비상 대응 절차를 문서화해야 하며, 필요한 법적 권한과 준수를 확인한다.

##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질문

1. 어떤 조건에서 거래가 승인되나? – 금액 한도, 자산 종류, 승인자 수 등.
2. 주소 등록·삭제는 누가 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
3. 정책 변경은 얼마나 자주, 어떤 절차로 발생하나?
4. 비상 대응 계획은? – 키 분실, 침해, 내부자 악용 등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한다.
5. 사용자 경험(UX)과 보안의 균형 – 과도한 지연이나 승인 요구는 업무 효율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고객 유형에 따라 정책을 세분화한다.

## 세션 스토리라인 예시 (1시간 내외)

1. 도입 (0-5분) – 수탁형 지갑의 목적과 세션의 핵심 메시지: “보안은 키를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잘못된 송금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2. 패턴 1 설명 (5-20분) – Coinbase 사례 소개 → 주소 화이트리스트와 48시간 hold의 효과 설명 → 등록·승인·지연·활성화 상태 머신 시각화 → 우리 시스템 설계 규칙 정리.
3. 패턴 2 설명 (20-35분) – Fireblocks 사례 소개 → SGX 엔클레이브, 정책 변경 quorums 설명 → TEE 데모 또는 코드 버전 관리 사례 → 정책 무결성 설계 규칙 도출.
4. 패턴 3 설명 (35-50분) – Anchorage 사례 소개 → HSM 내부 정책 엔진, API 우회 공격 방어 설명 → 서명 경계에서의 재검증 데모 → 설계 규칙 정리.
5. 패턴 4 설명 (50-60분) – BitGo 2-of-3 구조와 분리 적합 설명 → 다중 서명 vs MPC 비교 → 키 분배·회전·비상 계획 논의 → 설계 규칙 정리.
6. 마무리 및 질의응답 – 보안 통제 1페이지 메모를 다시 보여주며 요점 강조. 청중이 역동성/재시도 등 신뢰성 질문을 하더라도 이번 세션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명확히 전달하고, 해당 내용은 별도 세션(Tracker/Reliability)에 포함될 것이라고 안내한다.

<sup>1</sup> Coinbase Transfer to Wallet: The Ultimate Guide

<https://www.walletfinder.ai/blog/coinbase-transfer-to-wallet>

<sup>2</sup> Is Coinbase Safe? How To Protect Your Cryptocurrency

<https://www.aura.com/learn/is-coinbase-safe>

<sup>3</sup> Coinbase’s “Allow List” Hold Is Misleading and Support Is No Help. : r/Coinbase

[https://www.reddit.com/r/Coinbase/comments/1kdifyk/coinbases\\_allow\\_list\\_hold\\_is\\_misleading\\_and/](https://www.reddit.com/r/Coinbase/comments/1kdifyk/coinbases_allow_list_hold_is_misleading_and/)

<sup>4</sup> Fireblocks Governance and Policies Engine

<https://www.fireblocks.com/platforms/governance-and-policies>

<sup>5</sup> <sup>16</sup> Securing Digital Assets in an Evolving Threat Landscape: The Fireblocks Defense-in-Depth

Approach to Security | Fireblocks

<https://www.fireblocks.com/report/the-fireblocks-defense-in-depth-approach-to-security>

⑥ Fireblocks - Submission in response to: Crypto asset secondary service providers: Licensing and custody requirements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2-12/c2022-259046-fireblocks.pdf>

⑦ Mitigating custody risks in the wake of FTX

<https://www.anchorage.com/insights/mitigating-custody-risks-in-the-wake-of-ftx>

⑧ ⑨ ⑩ Anchorage Digital\_Finding End-To-End Security In Crypto Custody\_Guide

<https://learn.anchorage.com/Finding-End-to-End-Security-in-Crypto-Custody.pdf>

⑪ ⑫ ⑯ BitGo Wallet Types

<https://developers.bitgo.com/docs/wallet-types>

⑬ ⑭ ⑯ What are Multi-Signature Wallets? Crypto Wallet Security | BitGo

<https://www.bitgo.com/resources/blog/what-is-a-multi-signature-wallet/>

⑮ SEC Issues Investor Bulletin on Best Practices for Crypto Asset Custody | BitGo

<https://www.bitgo.com/resources/blog/sec-issues-investor-bulletin-on-best-practices-for-crypto-asset-custody/>